

## A Study on Family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Mi Hyun Kim<sup>1)</sup> · Yong-Seok Choi<sup>2)</sup>

### Abstract

We note that the time of adolescents is very important time for obtaining informations about their jobs, exploring and making appropriate their career decis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adolescents, we needed a study on effects of personal variables and family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For this, we provid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family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using the path analysis. Therefore, in this study, we give the real usefulness for making a different diagnosis and strategy solving some problems of career decision level.

**Keywords** : Career Decision Level, Family Variables, Path Analysis, Personal Variables

### 1. 서론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진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궁극적인 교육목적으로 삼아 자신의 모습이나 가치관, 진로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고찰과 평가를 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에서도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적절한 진로선택을 위한 탐색 및 준비의 시기로서, 개인이 어떤 진로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은 본인의 자아실현과 함께 개인발달에 중대한 요인으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Osipow 외 2인, 1976).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멀티미디어 협동학과 박사과정

E-mail : milland@hanmail.net

2) 교신저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E-mail : yschoi@pusan.ac.kr

특히, 진로발달에 있어서 진로결정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환경 특히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족변인인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의 관계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선택인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사람이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여러 연구(정채기, 1991; Blustein 외 2인, 1989; Lucas, 1997)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변인인 자아정체감 수준(정체감 성취와 정체감 혼란)에 따라 가족변인인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하여 서로 비교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정체감 발달단계에 따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덧붙여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상담 장면에 적용해 진로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주어져야 하는지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진로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결정수준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 시내에 소재한 남녀공학 3개교와 남학교 3개교 여학교 3개교를 표집하여 1개교에 1개의 학급을 표집하였다. 총 360명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동안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최종적으로 316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 15부가 제외된 301(95.25%)부가 선정되었다. 총 표집 인원 301명 중 남학생이 159명(52.8%)이고 여학생은 142명(47.2%)로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구분	학교수	학생수(%)		
		남학생	여학생	계
남·여공학교	3	75(24.9)	69(22.9)	144(47.8)
남학교	3	84(27.9)	.	84(27.9)
여학교	3	.	73(24.3)	73(24.3)
계	9	159(52.8)	142(47.2)	301(100)

## 2.2 검사도구

2.1절의 연구대상을 통하여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4종류의 검사도구를 만들었다.

### 1) 진로결정수준 검사(CDS; Career Decision Scale)

진로결정수준 척도는 Osipow 와 4인(1980)이 개발한 것으로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단계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항 6개와 개방형 질문을 제외하고 진로에 대한 확신 수준을 나타내는 1개의 문항과 진로미결정 정도를 나타내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을 위한 신뢰계수(Cronbach's alpha)는 0.75로 나타났다.

### 2) 부모와의 애착 검사(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청소년들의 부모와 동료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동료애착 연구 개정판 전체 75 문항 중, 정정숙(1994)이 번안한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 척도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척도의 신뢰계수는 각각 0.89와 0.88로 나타났다.

### 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검사(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심리적 독립 척도는 Hoffman(1984)이 제작한 것으로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어머니로부터의 독립 정도를 측정하는 69개의 문항과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정도를 측정하는 69개 문항을 합한 총 13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능적 독립 척도(FI : functional independence), 태도적 독립 척도(AI : attitudinal independence), 정서적 독립 척도(EI : emotional independence), 갈등적 독립 척도(CI : conflictual independence)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은희(1992)가 번안한 것을 참고로 하여 갈등적 독립 척도 25문항 중 우리나라 실정이나 중학생에 맞지 않은 8문항을 빼고 17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계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각각 0.72와 0.71로 나타났다.

### 4) 자아정체감 검사(EOMEIS-2; 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자아정체감 척도는 Adams와 Bennion(1986)의 것을 송설희(1994)가 우리문화와 감성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중학생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문항을 제외하고 성취와 혼란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

우 그렇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자아 정체감 성취와 자아 정체감 혼란에 대한 문항의 신뢰계수는 0.75와 0.76이었다.

### 2.3 검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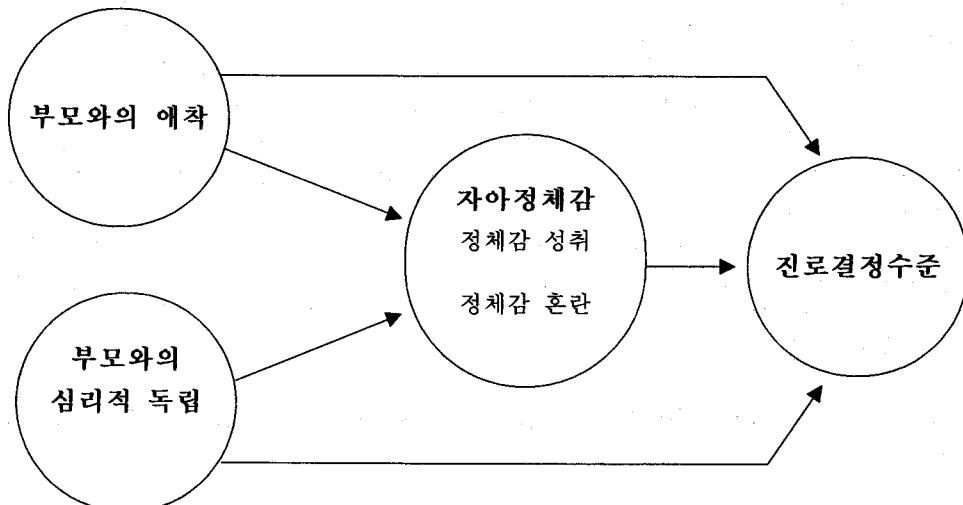
검사의 실시는 표집 대상 학교별로 해당 학교 교사를 검사 협조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검사하거나 협조자를 직접 만나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2.1절의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중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2.2절에서 설명한 4가지 진로 결정 수준 검사, 부모애착 검사, 심리적 독립 검사, 자아정체감 검사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6년 7월 1일~7월 15일에 걸쳐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하였으며, 검사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여분이었다.

### 2.3 연구모형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고려할 모형에 대해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할 경로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가족변인]으로 부모와의 애착변인과 심리적 독립이 있으며, [개인변인]으로는 자아정체감이 있다. 특히, 자아정체감은 정체감 성취, 정체감 혼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 1>은 실제 분석에서 검토할 연구모형으로 첫째, 부모와의 애착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통해 직·간접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며 둘째,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가족 변인 ]

[ 개인 변인 ]



&lt;그림 1&gt;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 3. 분석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특징

2.1절에서 언급한 301명의 연구대상자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진로결정수준, 가족변인 및 개인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N=301)

변인	측정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진로결정수준	12	32.54	6.66	13	48
모와의 애착	13	42.67	10.59	11	59
부와의 애착	13	40.98	10.57	11	59
모와의 심리적 독립	17	54.62	9.38	28	82
부와의 심리적 독립	17	54.98	9.20	30	81
정체감 성취	5	12.91	2.72	6	20
정체감 혼란	5	10.07	2.73	5	19

\*진로결정수준 : 4점 척도

\*부모와의 애착 : 5점 척도

\*모와의 애착 : 5점 척도

\*자아정체감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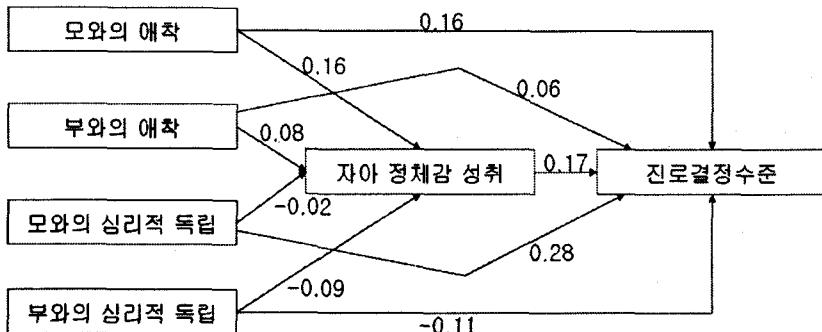
<표 2>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인 부산지역 중학생들은 진로결정수준은 높은 편이며, 아버지와의 애착(40.98)보다 어머니(42.67)와 더 많은 애착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머니보다 아버지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이 조금 더 잘 되어 있고, 정체감 발달 수준에 있어서 성취(12.91)가 혼란(10.07)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의 경로분석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감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경로도를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직접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변인을 통해 간접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체감 성취, 그리고 정체감 혼란 수준에 따라 각각 분류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윈도우용 LISREL/SIMPLIS(version 8.03)가 분석결과 얻는데 사용되었다(김석우, 최용석, 2001).

##### 가. 가족변인과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경로도를 제시하였다.



&lt;그림 2&gt; 정체감 성취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경로도

또한, 자아정체감 성취 중학생을 중심으로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를 계산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lt;표 3&gt; 정체감 성취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상관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진로결정수준	모와의 애착	.31	.16	.03	.19
	부와의 애착	.28	.06	.01	.07
	모와의 심리적 독립	.26	.28	-	.28
	부와의 심리적 독립	.21	-.11	-.01	-.12
	자아정체감 성취	.21	.17	-	.17
자아정체감 성취	모와의 애착	.20	.16	-	.16
	부와의 애착	.18	.08	-	.08
	모와의 심리적 독립	-.01	-.02	-	-.02
	부와의 심리적 독립	-.02	-.09	-	-.09

<표 3>에 의하면 중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과 자아정체감 성취는 0.21로 양의 상관이 있고, 특히, 자아정체감 성취와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0.01과 -0.02로 음의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부모에게 부탁하는 학생이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의거하여 진로결정수준 경로도인 <그림 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와의 애착은 중학생에게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성취를 통해 간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와의 애착은 중학생에게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성취를 통해 간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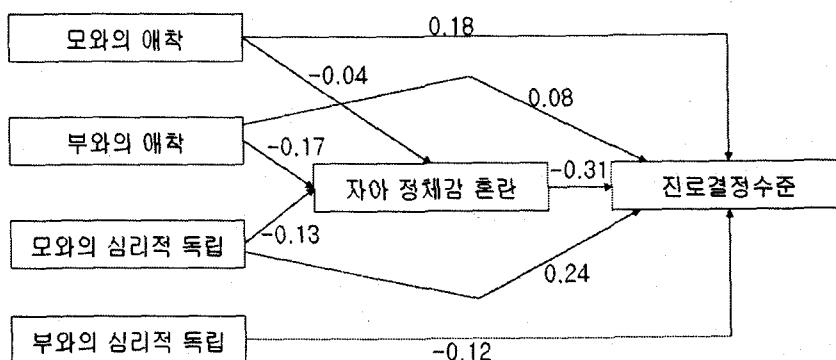
넷째, 부와의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수준에 직·간접영향을 미친다. 즉 부와의 심

리적 독립은 중학생에게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성취를 통해 간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의하면, 자아정체감 성취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가족변인에서는 모와의 심리적 독립(0.28), 모와의 애착(0.16), 부와의 애착(0.06) 순이었으며, 간접효과는 모와의 애착(0.03), 부와의 애착(0.01) 순이었고 전체효과는 모와의 심리적 독립(0.28)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모와의 애착(0.19), 부와의 애착(0.07), 부와의 심리적 독립(-0.12) 순이었다.

#### 나. 가족변인과 자아정체감 혼란 수준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경로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3> 정체감 혼란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경로도

또한, 자아정체감 혼란 중학생을 중심으로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를 계산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자아정체감 혼란 중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대한 변인들 중 부모와의 애착(0.31과 0.28) 및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0.26과 0.21)은 양의 상관을 보이나 정체감 혼란은 -0.38로 음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혼란이 음의 상관을 보이는 것은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며, 친한 친구도 없고, 적절한 장래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설문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학생이므로 진로결정 수준이 낮아 보인다.

&lt;표 4&gt; 정체감 혼란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상관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진로결정수준	모와의 애착	.31	.18	.01	.19
	부와의 애착	.28	.08	.05	.07
	모와의 심리적 독립	.26	.24	.04	.28
	부와의 심리적 독립	.21	-.12	-	-.12
	자아정체감 혼란	-.38	-.31	-	-.31
자아정체감 혼란	모와의 애착	.23	-.04	-	-.04
	부와의 애착	.25	-.17	-	-.17
	모와의 심리적 독립	.21	-.13	-	-.13
	부와의 심리적 독립	.20	-	-	-

<그림 3>의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의거하여 진로결정수준 경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와의 애착은 중학생에게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혼란을 통해 간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와의 애착은 중학생에게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성취를 통해 간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와의 심리적 독립은 중학생에게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혼란을 통해 간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정체감 혼란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의 경우는 <표 3>의 정체감 성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모와의 심리적 독립은 간접효과가 있으며 부와의 심리적 독립은 간접효과가 없는 점이 정체감 성취와 다른 경우이다.

#### 다. 경로분석 결과의 종합

중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경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정체감을 성취와 혼란의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모두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아정체감 성취와 혼란은 진로결정수준에 양과 음으로 직접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진로결정수준에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변인인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상담은 내담자의 생활사와 가족환경을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내담자 스스로가 탐색과 수용을 통해 적절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아정체감 발달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요인이 자아정체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내담자가 원만하지 못한 부모와의 관계를 호소한다면 우선 부모와의 관계를 해결하도록 노력한 다음에 진로상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결정을 돋기 위해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이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 진로결정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로상담의 차별적인 진단과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실제적인 유용성을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수준 척도가 13문항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 정도를 세밀하게 구별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4점 척도 역시 극단으로 답하지 않으려는 피검자 경향으로 인하여 진로결정수준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로결정 정도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변인인 부모와의 애착의 양 이외에 애착의 형태나 질을 구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은 애착의 양의 지표를 제공해 주기는 하겠지만, 애착의 형태나 질을 구별하는 도구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애착의 형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애착과 진로발달 구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정체감 척도가 각 수준별 5문항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발달 정도를 세밀하게 구별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및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중학생에 맞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문항들은 자가보고형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독립과 애착 정도, 정체감 수준, 진로결정수준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실제 상호 작용을 통해 관계의 성질을 분석할 수 있는 녹음이나 녹화 등의 조작 가능한 실험적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김석우, 최용석(2001). 윈도우용 LISREL을 활용한 인과모형의 이해와 응용.  
학지사
2. 송설희(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정은희 (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정정숙 (1994).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5. 정채기 (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Adams, G. and Bennion, L. (1986). A revision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7. Armsden, G. C. and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8. Blustein, D. L. Devenis, L. E. and Kidney, B. A. (1989). Relation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196-202.
9.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 - 178.
10. Lucas, M. (1997). Identity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23-132.
11. Osipow, S. H., Carney, C. G., and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12. Osipow, S. H., Carney, C. G., Winter, J., Yanico, B., and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 2007년 9월 접수, 2007년 11월 채택 ]